

2024년 7월 30일 제38호

연 구 원 이 예 린
연 구 원 서 유 나
연 구 원 김 중 현

HIF 월간 산업 이슈(7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음식료품 K-Food, 내수는 꽁꽁, 수출은 활활

- 계절적 비수기 진입 및 내수 경기 침체 등 대외 환경 악화에도 높은 식품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며 해외시장이 2분기 식품업 실적도 견인
- 주요 식품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수출 대응으로 해외 실적 확대가 기대되나 기업별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 등에 따라 차별화된 실적 보일 것으로 예상

반도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영향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및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했으며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관세 도입을 주장
- 트럼프 집권 시 미국 내 제조공장 설립에 대한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되고 고관세 도입에 따른 대미 및 대중 수출 위축, 공급 과잉 등의 혼란이 우려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제조시설을 확장할 때 지정학적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전망

조선 한국 조선소에도 다시 찾아온 컨테이너선 수주

- '24년 상반기 글로벌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은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한국 조선소의 수주가 부진 하였으나 친환경 선대 구축을 위한 발주가 이어지면서 '24년 7월부터 한국 조선소의 수주 재개
-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선대 리뉴얼이 필요한 가운데 공급자 우위 흐름이 지속되며 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는 국내 조선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산업 이슈

음식료품

K-Food, 내수는 꽝꽝, 수출은 활활

반도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영향

조선

한국 조선소에도 다시 찾아온 컨테이너선 수주

C10-11. 음식료품

K-Food, 내수는 꽁꽁, 수출은 훨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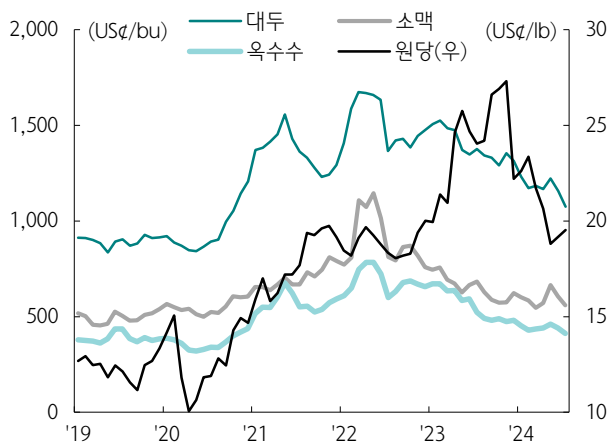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식품업은 계절적 비수기 진입 및 내수 경기 침체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해외 시장의 높은 성장세가 지속되며 2분기 실적 개선이 기대. '24년 상반기 기준 가공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며 식품업의 실적을 견인. 주요 식품 기업들의 수출 지역 확대 및 품목 다각화 등 적극적인 해외 수요 대응으로 해외 매출 확대 추세는 지속. 다만, 인구 구조 변화, 소비자 구매력 감소 등 비우호적인 내수 환경으로 국내 시장의 성장 제한되며 기업별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에 따라 당분간 차별화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

■ 계절적 비수기 진입 및 내수 경기 둔화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의 높은 수출 성장세가 이어지며 해외 시장이 식품업의 실적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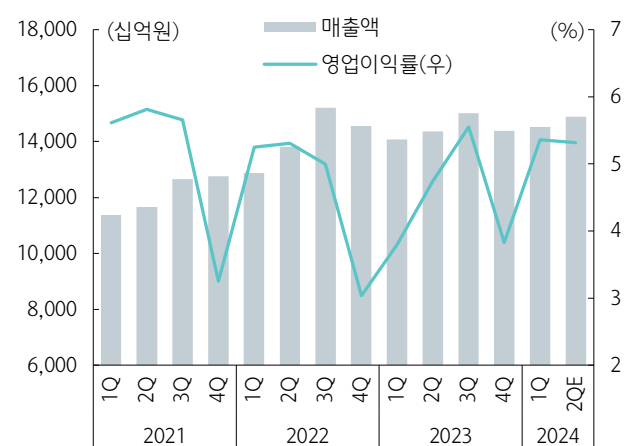
- 대두, 소맥 등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 및 김, 제과를 비롯한 일부 품목 판가 인상, 주요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 확대 등으로 2분기 식품업 실적은 개선된 것으로 파악
 - CJ제일제당 등 식품업 10개사의 2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비 0.6%p 상승한 5.3%로 추정
 - 소맥 가격(US \$/bu): 729.3('23.1Q) → 632.6('23.3Q) → 577.4('24.1Q) → 557.7('24.3Q)
 - 원당 가격(US \$/lb): 20.8('23.1Q) → 24.9('23.3Q) → 22.6('24.1Q) → 19.4('24.3Q)
-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한식에 대한 선호도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며 '24년 상반기 기준 가공식품을 비롯한 농식품 수출액은 47.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
 - 국가별 식품 수출 비중: 미국(20.8%), 아세안(26.4%), 중국(19.8%), 일본(19.0%), 유럽(9.6%)

그림1 | 주요 농산물 가격 추이



주 : 대두, 소맥, 옥수수수는 CME(CBOT) 기준, 원당은 ICE(NYBOT) 기준
자료 : Korea PDS

그림2 | 식료품 제조업 실적



주 : 식료품 제조업 상위 10개 기업 합산 기준, 2분기는 추정치
자료 : Value 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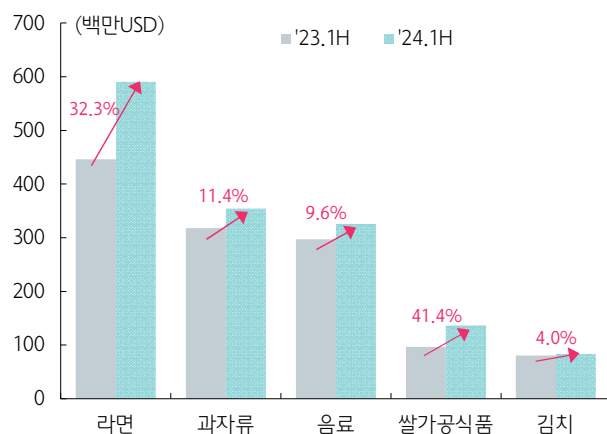
■ K-Food의 인지도 상승과 적극적 수출 대응으로 주요 식품 기업들의 해외 실적 확대가 기대

- 중국 외 미국, 유럽, 인도 등의 젊은층 중심의 수요 기반 확대로 주요 식품사들은 라면, 쌀가공식품, 김, 제과, 주류 등 수출 품목을 다각화하며 해외 수출을 확대
 - CJ 제일제당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호주 등의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에 입점하고 현지화된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
- 삼양식품의 밀양 2공장 증설, 농심의 미국 2공장 내 생산라인 확대 등 식품업체들은 생산기지 및 물류센터를 확대하며 늘어난 해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 다만, 기업별 국내 및 해외 매출 비중 등 사업구조에 따라 차별화된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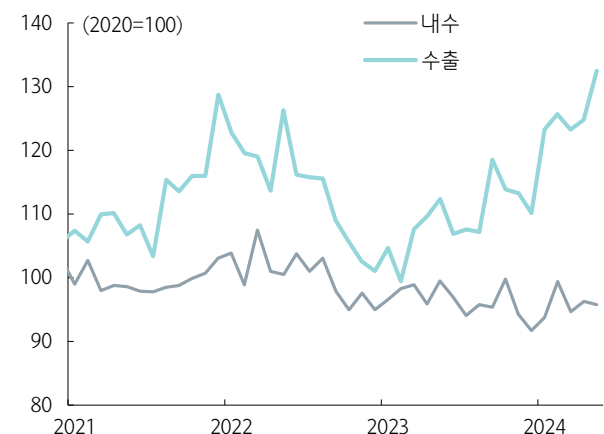
- 내수 비중이 높은 오뚜기, 동원F&B, 매일유업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비 0.3p%, 매출액은 3.7% 증가하며 수출 중심 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
 - * 2023년 기준 주요기업의 해외 매출 비중: 오뚜기 9.6%, 매일유업 3.7%, 동원F&B 3.0%
- 반면, 라면, 쌀가공식품(냉동김밥, 볶음밥 등), 김 등 다양한 품목에서 수출 성장세가 나타나며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수출 주력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
 - 라면, 쌀가공식품, 김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2.3%, 41.4%, 20.1% 증가
 - '23년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6개사의 1분기 합산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2.4%p, 매출액은 15.5% 증가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감소, 잦은 비로 인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 부진 등 비우호적 내수 환경으로 2사분기 국내 식품 시장의 성장이 제한되며 수출 주력 기업 외에는 당분간 매출 성장률이 크지 않을 전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2020=100): 95.9('23.2Q) → 96.7('23.3Q) → 96.6('23.4Q) → 93.6('24.1Q) 📉

그림3 | 상반기 품목별 수출 실적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림4 | 식품품 제조업 내수 및 수출 출하지수(계절조정)



자료 : 통계청

C26. 반도체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국내 반도체 산업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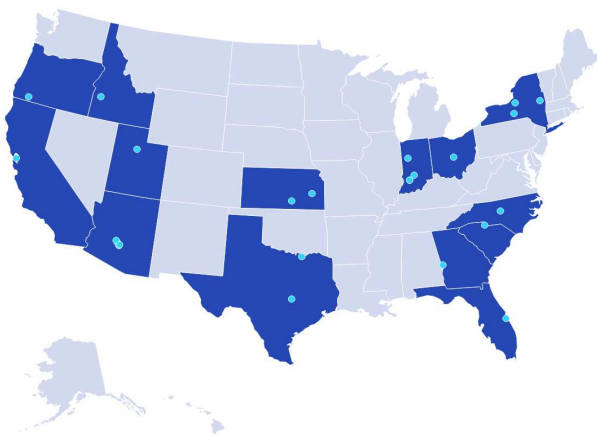
연구원 서유나

※ Summary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지원법 및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비판했으며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고관세 도입을 주장.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염두해 북미 내 제조공장 건설에 5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 집권 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대출 지원, 세제 혜택 등 지원 규모가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증가. 또한 고관세 도입에 따른 대미 및 대중 반도체 수출 위축과 공급 과잉 등의 부정적 영향이 우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의 제조시설 확장 시 지정학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전망

■ 국내 반도체 업계는 美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염두해 북미 제조공장에 50조원 이상을 투자

- 반도체 생태계를 미국 내에 구축하려는 바이든 행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미국 내 제조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은 북미에 공장을 건설 및 계획 중
 - 지난 4년간 CHIPS Act 보조금 527억 달러를 앞세워 총 3,517억달러(약 487조원)의 투자를 유치
- 삼성전자는 투자금액 440억 달러 중 64억 달러를 지원받아 텍사스주에 인공지능 및 5G용 4나노 공정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1공장을 착공 중이며 2026년에 가동할 예정
 - 동일 부지 내에 2나노 파운드리 공정의 2공장과 첨단 패키징 시설이 함께 준공될 예정
-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약 5.3조원)를 투자해 최첨단 고대역폭 메모리(HBM)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미국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상황

그림5 | 미국 내 건설·계획 중인 칩 제조공장



자료 : SIA

표1 |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북미 투자 현황

기업	용도	위치	투자금액	진행현황
마이크론(미)	첨단 메모리 제조	뉴욕주	1,000억 달러 (보조금 61억달러)	착공 전
TSMC(대)	42나노 파운드리	애리조나주	650억 달러 (보조금 66억달러)	착공 중
삼성전자	42나노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텍사스주	440억 달러 (보조금 64억달러)	착공 중
인텔(미)	파운드리	애리조나주	320억 달러 (보조금 85억달러)	착공 중
텍사스인스 트루먼트(미)	산업·차량용 반도체 제조	텍사스주	300억 달러 (보조금 대기)	착공 중
글로벌 파운드리(미)	차량용 반도체 제조	뉴욕주	115억 달러 (보조금 15억달러)	착공 전
SK하이닉스	HBM 패키징	인디애나주	38.7억 달러 (보조금 대기)	착공 전

자료 : SIA, 언론보도 종합

■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비판하고 고관세 도입을 주장

-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는 대만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산업정책인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및 보조금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내비침
 -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에 새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는 데에 미국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갔다고 발언
-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의 고율관세 및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등 미중 갈등 심화로 반도체 수출 위축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글로벌 교역이 둔화될 소지
- 반도체지원법 법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절차가 필요해 완전한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대통령의 행정권을 통해 미국 기업에 우선적 혜택 등이 예상

■ 국내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시 대미 및 대중 수출 위축, 공급 과잉 등의 영향을 받을 전망


-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자국 우선주의에 따라 한국 기업 대상의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에서 대출 지원, 세제 혜택 등으로 지원 규모를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존재
 - 한국 기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만 사례처럼 보조금 지원을 문제 삼을 가능성 有
- 보편관세 도입 시 국내 반도체 제조업을 비롯한 관련 IT 산업의 대미 수출 위축, 중국向 견제 범위 확대에 따른 대중 수출 위축, 한국 및 주요 수출국 내의 공급과잉 등의 혼란이 우려
 - 국내 반도체 수출국 중 중국과 미국은 각각 1위, 5위이며, 미중 무역전쟁 및 CHIPS Act 등 미중 갈등 격화에 따라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 수출 규제가 아니었음에도 대중 반도체 수출이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
- 이러한 정책 변화는 국내 기업들이 제조시설을 확장할 때 기존 북미 중심으로 진행된 공급망 재편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해 지정학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전망
 -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생산기지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하면서 반도체 수출국 순위가 변동 

그림6 | 한국의 對中, 對美 반도체 수출



주: MTI 83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표2 | 연도별 반도체 수출국 순위

	2019	2020	2021	2022	2023
1위	대만	대만	대만	중국	대만
2위	중국	중국	중국	대만	중국
3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4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5위	일본	일본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6위	미국	싱가포르	미국	일본	일본
7위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미국	베트남
8위	필리핀	베트남	독일	필리핀	미국

주: Commodity 776 기준
자료: US Comtrade

C31. 조선

한국 조선소에도 다시 찾아온 컨테이너선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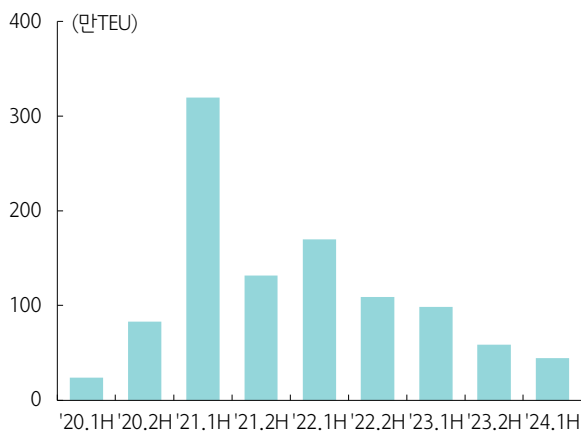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기저효과와 공급과잉 우려로 인해 '24년 상반기 글로벌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량은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특히 한국 조선소의 컨테이너 수주가 부진. 그러나 친환경 선대 구축을 위한 발주가 이어지면서 중국 조선소의 도크가 먼저 소진된 이후 '24년 7월부터 한국으로 수주가 재차 넘어오는 상황. 한편,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를 위해 노후선 교체를 통한 선대 리뉴얼이 필요한 가운데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자 우위 흐름이 지속됨에 따라 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형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흐름은 국내 조선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24년 상반기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신조 발주 감소 속 한국 조선소는 컨테이너 수주 절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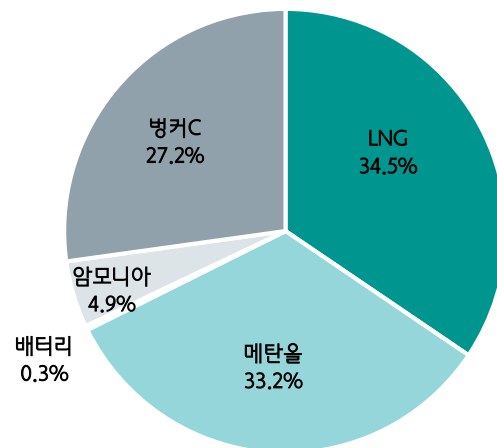
-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량은 '21~'22년 대량 수주 이후 기저효과로 인해 '23년에는 감소세를 기록하였으며 '24년 상반기 수주량 역시 YoY 60% 감소한 44만TEU 기록
 - 글로벌 컨테이너선 발주량 (백만TEU) : 3.5('21.1H) → 1.7('22.1H) → 1.0('23.1H) → 0.4('24.1H)
- 더구나 '24년 상반기 컨테이너 수주물량의 대다수가 중국 조선소로 쏠렸으며 동기간 한국 조선소의 컨테이너 수주 실적은 부진
 - '24년 상반기 국가별 컨테이너선 수주 비중 : 중국 98.5%, 한국 1.5%, 일본 0.0%
- 발주량 감소 속에서도 CMA CGM, ONE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해 친환경 대체 연료 추진선의 발주량이 늘며 친환경 선박의 비중이 상승
 - 컨테이너 수주잔량의 추진 체계별 비중 : LNG 34.5%, 메탄올 33.2%, 벙커C 27.2% 등

그림7 |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량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그림8 | 컨테이너 수주잔량의 추진체계별 비중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 친환경 선대 구축을 위한 발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조선소의 도크가 먼저 소진된 이후 '24년 7월부터 한국 조선소로 수주가 재차 넘어오는 상황

- 중국의 가격 우위 전략 속 한-중 기술 격차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메탄올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도 중국이 우선순위를 점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이 고려되는 상황
 - 컨테이너선 수주잔량 중 친환경 선박의 국가별 비중 : 중국 55.1%, 한국 36.5%, 일본 8.1%
- 국내 조선소는 LNG선, 가스선 등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하며 컨테이너선에 대한 영업 기대감이 약한 상황이었으나 꾸준한 선대 교체 수요로 인해 발주량 유입이 이어지는 형국
 - ('24.7) CMA CGM은 한국조선해양에 15,500TEU LNG DF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
 - ('24.7) Maersk는 16,000TEU LNG DF 컨테이너선 12척을 발주하기 위해 국내 조선소와 접촉
- 한편, 선령(船齡) 15년 이상의 노후선은 대체로 기존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비 효율도 낮아 강화되는 환경규제 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우므로 선대 리뉴얼이 필요하며 현재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약 32.7%가 교체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
 - '24년 7월 글로벌 컨테이너 수주잔량은 현 선대의 19.2% 수준이므로 이를 제외한 13.5% (약400만TEU) 규모의 신조 발주가 15년 이상 노후선 대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분석

■ 대형 해운사들의 친환경 선박 발주 흐름은 국내 조선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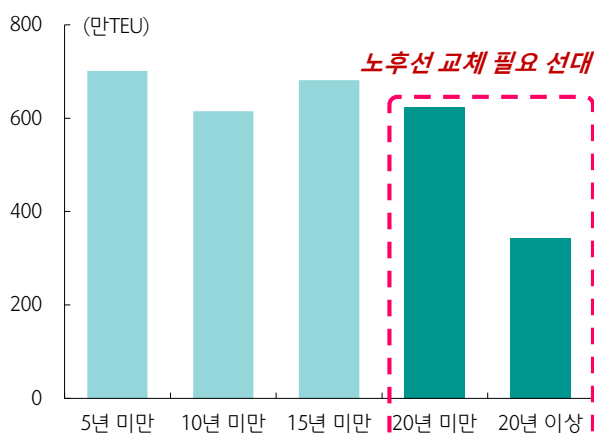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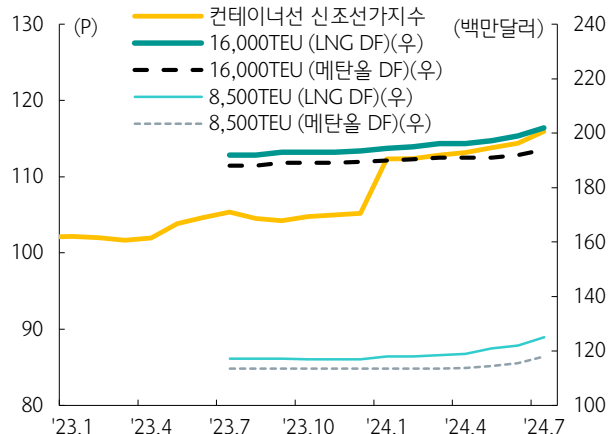
- 국내 조선소는 약 4년간의 일감을 확보하였으나 '27년 이후의 인도 물량에 대한 영업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속적인 수주를 통해 장기 호황 사이클을 형성할 필요
 - 국내 조선소 신조선 인도량 (백만CGT) : 12.6('24) → 11.8('25) → 10.1('26) → 7.6('27) → 3.0('28)
- 다년간 확보한 수주잔량을 바탕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면서 신조선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 신규 친환경 선박 수주 물량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컨테이너 신조선가지수 (P) : 77('20.7) → 91('21.7) → 103('22.7) → 105('23.7) → 116('24.7) 

그림9 | 글로벌 컨테이너 선대의 선령별 분포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그림10 | 컨테이너선 신조선가 추이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